

# '전주대사습청' 내달 문 연다

전주대사습놀이 전통 계승·자료 수집·전시·전국대회 운영 지원 등 추진

소리의 고장 전주에 전주대사습놀이의 보존과 발전을 이끌 대사습청이 생긴다.

국내 최고 명인·명창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전주소리문화관을 '전주대사습청'으로 변경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주대사습청은 전주대사습놀이의 뿌리 깊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대사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대사습청은 전주대사습놀이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등 보존·관리에 집중하면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문화재 등

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예정이다.

전주대사습청 운영은 지난날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책임진다.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1974년부터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와 함께해온 만큼 전주대사습청의 부흥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전주대사습청이 문을 열면 문화도시 전주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주대사습놀이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화축제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명칭제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전주소리문화

관을 전주대사습청으로 변경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대사습청의 개관은 전주대사습놀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폭격 있는 불거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전주 문화의 중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사습은 조선조 숙종대의 마상 궁술대회, 영조대의 물놀이와 판소리, 백일장 등 민속무예놀이를 종합한 분야로, 영조 8년 지방재인정과 기무대사습청의 설치에 따라 전주에 4군자정을 신축해 전주에서 최초로 베풀어진 뒤 매년 연례행사로 지속 행해졌다.

/김윤상 기자

# '지금 시작하는 50+어른학교' 수강생 모집

전주시, 26일까지 45~64세 시민 대상 목공·낭독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목공, 영상제작, 낭독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45~64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작하는 50+어른학교' 수강생 108명을 모집한다.

'지금 시작하는 50+어른학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 전환기를 맞은 시민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50+반려의 숲 ▲나의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낭독 ▲50+심진강 종주 프로젝트(7~8구간) ▲50+영상제작단 ▲즐거움 생활가꾸기 만들기(목공)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ykaj753@korea.kr)로 신청하면



전주시가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목공, 영상제작, 낭독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평생학습관(063-281-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45~64세 시민들이 막연하게 인생 후반기를 고민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라

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어른학교 프로그램은 단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사회공헌활동 등 50+세대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 조성·진흥 관한 조례 제정·공포

전주시가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발굴·진흥 ▲정원문화 확산 지원 ▲정원 공모전 및 정원박람회 개최 ▲초록정원사 양성 ▲민간 정원 장려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6월 예정인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와 호동골 양묘장 및 아중호수 일대를 명품정원으로 만들 전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 등에 탄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포함된 포상 규정을 통해 제2의 완산동 꽃동산을 발굴하는 정원 공모전 사업 등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원산업 발전을 유도해 잠재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초록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해 정원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 및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청년예술인 안정적 창작활동 돕는다

전주, 청년예술시(집) 참여 예술인 16~20명 29일까지 모집

전주시가 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네트워크, 창작지원금, 전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주, 청년예술시(집)' 참여 예술인 16~2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전주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대학생 및 청년 예술인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미디어 ▲공예 ▲문화 기획 등 8개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자다.

주요 지원내용은 ▲장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타 지역 답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장르별 창작 지원금 지급 및 예술기획 캠프 ▲성과물 전시 등이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이메일(kim-2557@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적 도시재생 인디

2021  
전주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2기 모집

## 청년 예술시(집)

**3.15.(월)~29.(월) 18:00까지**

응모자격 **전주 거주 청년예술인(87년~02년 출생자)**

공모분야 **8개 예술 분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미디어, 공예, 문화기획)

전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전주, 청년예술시(집)' 참여 예술인 16~20명을 모집한다.

(063-287-114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창작지원 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 청년예술시(집) 사업은 시민들에게는 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청년예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해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문화예술 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

내달 23일까지 청소 취약지역 중심... 불법투기자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주시가 새봄을 맞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약 한 달간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배달음식·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집중단속반은 야간 잠복근무로 현장적발은 물론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나온 고지서와 택배 영수증 등의 정보를 통해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차량과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적발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 및 감시활동 등을 활용해 계도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장은 "취약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에서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